

2024년 1/4분기 주력산업 모니터링 보고서

2024. 5.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

본 자료는 각 산업의 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8개 지역본부에서 각종 행내외 통계자료, 업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에 관한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차 례

<요 약>

<산업별 모니터링 결과>

I . 반도체 (경기본부 이가영 과장)	1
II . 자동차 (울산본부 최문정 과장, 안주현 조사역)	6
III . 석유화학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과장)	10
IV . 철강 (포항본부 박상순 과장)	14
V . 조선 (경남본부 황나윤 조사역)	18
VI . 디스플레이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성수 과장, 이상원 조사역)	22
VII . 휴대폰 (대구경북본부 손성보 조사역)	26
VIII . 이차전지 (충북본부 이재진 과장)	30

<요약>

- ① 반도체는 수출이 2024년 1/4분기 중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모두 호조를 보이며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4분기에도 글로벌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초과수요의 영향이 지속되며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 반도체 수출증가율(이하 전년동기대비): 23.4/4 +10.4% → 24.1/4 +50.7%
 - 지난해 부진했던 파운드리 시장도 AI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업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② 자동차는 1/4분기 중 생산(대수기준)이 주요 업체의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공사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2/4분기에는 지난해 높은 생산수준에 대한 기저효과로 생산 감소세는 이어지겠으나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 자동차 생산증가율: 23.4/4 +1.7% → 24.1/4 -3.7%
 - 유럽시장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수출은 SUV,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북미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판매는 소비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2/4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③ 석유화학은 1/4분기 중 생산과 수출(-0.3%)이 주요 생산국의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감소 전환하였다. 2/4분기 생산과 수출은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나 공급과잉 영향이 지속되면서 업황 개선 흐름이 제약될 전망이다.
- ▶ 석유화학 생산증가율(생산지수): 23.4/4 +2.1% → 24.1/4 -3.0%
 - 고유가 지속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용제품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제품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④ 철강은 1/4분기 중 생산이 전방산업 업황이 엇갈리며 보합세를 보이고 수출(-5.6%)은 단가 하락(-9.0%)으로 감소하였다. 향후에도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불확실성, 단가 하락 영향 지속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철강 생산증가율(생산지수): 23.4/4 +19.9% → 24.1/4 +0.5%
 - 철강 수요는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이 제약될 전망이며, 수출단가는 향후 글로벌 경쟁 심화로 하락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⑤ 조선은 1/4분기 중 신규 수주가 LNG, 가스선 등 고부가선박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는 글로벌 발주 감소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선 신규 수주 증가율: 23.4/4 -10.0% → 24.1/4 +32.9%

- 생산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수주 잔량으로 협상력이 제고된 가운데 고부가선박(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 탱커선 등) 중심의 선별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⑥ 디스플레이는 1/4분기 중 생산이 양호한 IT기기 수요에 힘입어 약 3년 만에 증가 전환하였으며, 향후 전방산업의 OLED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디스플레이 생산증가율(생산지수): 23.4/4 -3.4% → 24.1/4 +9.1%

- 설비투자는 IT제품 OLED 생산을 위한 장비 수입 등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⑦ 휴대폰은 1/4분기 중 AI 탑재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완제품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부품 수출은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향후 완제품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품 수출 감소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휴대폰 수출증가율: 23.4/4 +2.4% → 24.1/4 -11.8% (완제품 +6.8%, 부품 -17.3%)

-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은 AI 탑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확대되겠으나, 동종업계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경쟁 심화는 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⑧ 이차전지는 1/4분기 중 유럽수출이 감소를 지속(23.4/4 -31.5% → 24.1/1 -48.8%)하는 가운데 미국수출도 감소 전환(+6.8% → -44.3%)하면서 수출 감소가 이어졌으며 2/4분기 중에도 전방산업 둔화, 판매가격 하락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 이차전지 수출증가율: 23.4/4 -1.7% → 24.1/4 -34.8%

- 주요국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업황에 긍정적 요인이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은 하방리스크로 상존하고 있다.

<산업별 모니터링 결과>

I 반도체 [경기본부 이가영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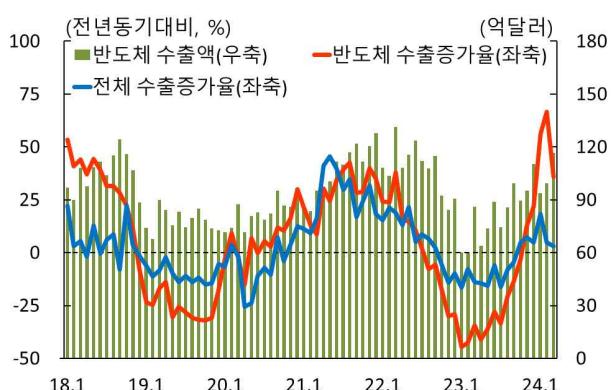
- 2024년 1/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세 지속, AI 서버 투자 확대, 수출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0.7% 증가하였다.
- 2024년 2/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초과수요 구간 진입에 따른 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상승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향

1. 2024년 1/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0.7% 증가하면서 증가폭(전분기 +10.4%)이 크게 확대되었다. 메모리반도체(+83.3%)가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시스템반도체(+17.7%)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반도체 생산도 전년동기대비 44.8%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메모리반도체의 가격 상승세 지속¹⁾, AI 서버 투자 확대, 수출물량 증가²⁾ 등 가격 및 물량 요인이 동반 작용한 데 기인한다. 한편 2024년 4월 중 수출(잠정)도 전년동월대비 56.1% 증가(메모리반도체 98.7%, 시스템반도체 18.5%)하는 등 1/4분기(+50.7%)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액은 증가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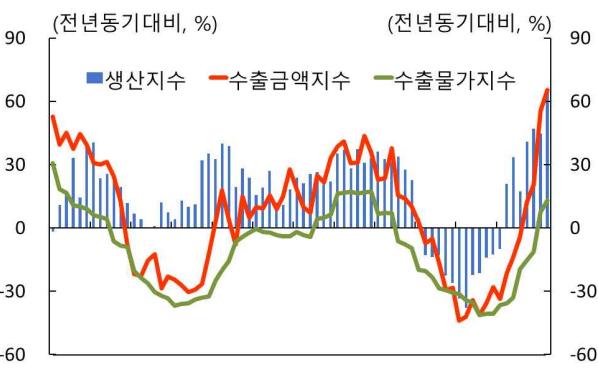
[그림 1.1] 반도체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 생산 및 수출금액은 증가세 확대, 수출물가지수는 증가 전환

[그림 1.2] 반도체 생산·수출금액·수출물가 지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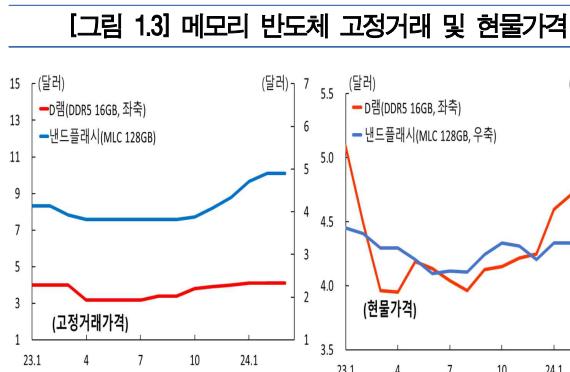
1) 메모리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상승 및 AI 수요확대에 따른 고수익성 제품군(HBM 등) 수요 확대로 2024.1/4분기 중 반도체 수출물가지수(계약통화, 월평균기준)는 전분기대비 17.2% 상승(전년동기대비 +12.3%)하였다.

2) 2024.1/4분기 중 반도체 수출물량은 전분기대비 10.3% 상승(전년동기대비 +13.4%)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1/4분기 중 메모리반도체(D램 및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³⁾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현물가격⁴⁾의 경우 D램이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낸드플래시도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공급조절 노력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D램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DDR5 및 HBM) 보급률 확대 요인이 가세하면서 평균판매가격(ASP, Average Selling Price)⁵⁾이 상승한 데 기인한다. 낸드플래시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PC 업체 등 반도체 수요기업들의 재고 확보 수요, 서버 OEM 업체들의 기업용 SSD(eSSD, enterprise SSD) 주문 증가⁶⁾⁷⁾ 등에 따라 고정거래가격이 상승하면서 현물가격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었다.

3. 동 기간 중 국내 반도체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은 AI 서버용 제품의 수요 강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전반적인 수요 회복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거나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D램 평균판매가격⁷⁾ 상승, 낸드플래시 재고 평가손실 충당금 환입⁸⁾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메모리반도체 고정가격 및 현물가격 상승세 지속



자료: DRAMeXchange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흑자 전환

[표 1.1] 반도체 기업 실적¹⁾

분류	2023	2024			
		2/4	3/4	4/4	
삼성전자 ²⁾	매출액	14.7	16.4	21.7	23.1 (68.5)
	영업이익	-4.4	-3.8	-2.7	1.9 (141.7)
	영업이익률	-29.6	-22.8	-10.1	8.3
SK하이닉스	매출액	7.3	9.1	11.3	12.4 (144.3)
	영업이익	-2.9	-1.8	0.3	2.9 (184.8)
	영업이익률	-39.4	-19.8	3.1	23.2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반도체 부문 기준
자료: 각사 홈페이지

3) D램(DDR5 16GB) 및 낸드플래시(MLC 128GB) 고정거래가격(\$) :

	23.6월말	9월말	12월말	24.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D램	3.17	3.32	3.90	4.10	4.10	4.10	4.90
낸드플래시	3.82	3.82	4.10	4.33	4.72	4.90	4.90

4) D램(DDR5 16GB) 및 낸드플래시(MLC 128GB) 현물가격(\$) :

	23.6월말	9월말	12월말	24.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D램	4.13	4.13	4.25	4.60	4.71	4.69	4.90
낸드플래시	6.30	6.37	6.35	6.42	6.42	6.42	6.39

5)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보안이나 최적화(customization) 등 이유로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온프레미스(On-premise) AI 서버를 자체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서버 OEM 업체들의 기업용 SSD 구매 확대 기조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용 SSD는 낸드플래시를 여러 개 끌어 만드는 저전력·대용량 데이터 저장 장치로 서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6) 글로벌 클라우드 1위 아마존이 데이터센터에 1,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도 오픈 AI와 연합하여 AI용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 추진 계획(1,000억달러)을 발표(4.1일)하였다. 이는 지난해 MS 자본지출(412억달러)의 2.4배가 넘는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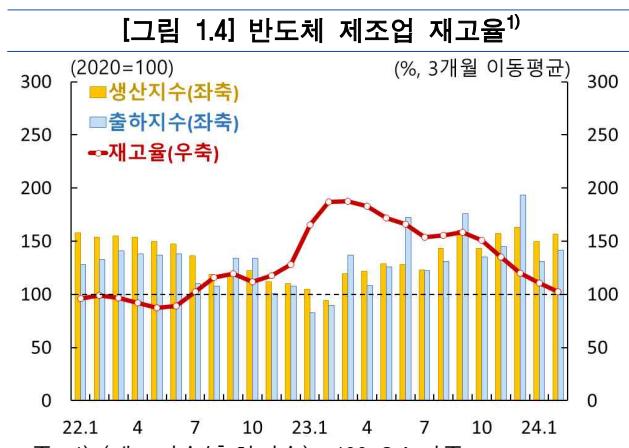
7)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024.1/4분기 중 D램 ASP는 전기대비 20% 상승하였으며, 낸드 ASP는 전기대비 30% 이상 상승하였다.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실적발표, 각각 4.25일, 4.30일)

8)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SK하이닉스의 낸드 부문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 규모는 약 9,000억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의 1/3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SK하이닉스 실적발표, 4.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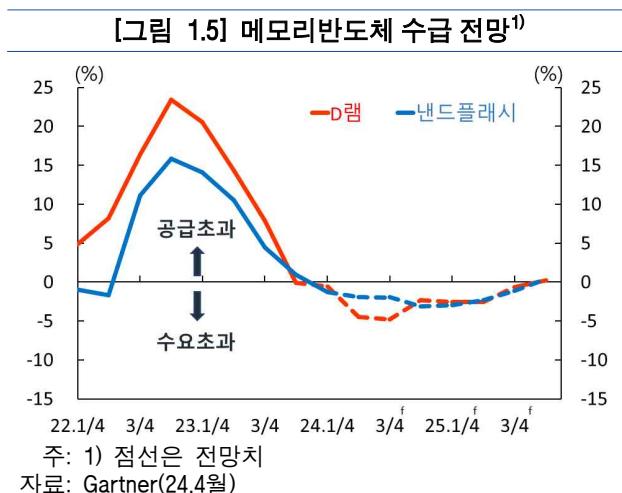
향후 전망

- 2024년 2/4분기 중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AI 서비스 확산⁹⁾에 따른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¹⁰⁾,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상승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생산은 업체들이 업황 개선에 따른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동률을 점차 정상화¹¹⁾하는 가운데, 제품별 재고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생산 수준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BM 증설 등 업체들의 설비투자¹²⁾도 확대될 전망이다.
- 메모리반도체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¹³⁾¹⁴⁾와 더불어 하반기 중 레거시 제품(PC¹⁵⁾¹⁶⁾, 모바일¹⁷⁾, 일반 서버¹⁸⁾ 등)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초과수요 구간에 진입하면서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세¹⁹⁾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율은 출하 증가 및 감산에 따라 재고율 하락



메모리반도체의 초과수요로 가격 상승세 지속 예상



9) AI 반도체 시장 전망(십억불, Gartner) : (2022) 42.2 → (2023) 53.7 → (2024e) 71.3 → (2025e) 92.0 → (2026e) 116.3

10) AI 플랫폼 성장으로 고객 및 출荷형(용량, 성능, 특화 기능 등) HBM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업체들 간 수익성이 높은 HBM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로닉스가 2024년 2/4분기 중 HBM3e(5세대) 8단 제품을, 삼성전자는 동 분기 중 HBM3e(5세대) 8단 및 12단 제품을 납품할 계획이다(삼성전자 실적발표, 4.30일).

11) 업계에 따르면, DRAM의 경우 총 웨이퍼 투입량이 2024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 SK하이닉스는 HBM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낸드플래시 생산공장으로 계획하였던 청주 반도체 공장(M15X)을 차세대 DRAM 생산시설로 변경하여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4.24일)하였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11월 양산을 목표로 공장 건설에 5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총 20조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13) AI 서비스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저장 공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픈 AI가 최근 공개한 영상 기반 AI 모델 '소라(Sora)'의 경우 기존 텍스트 기반 거대언어모델(LLM)에 비해 훨씬 더 큰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14)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도 AI 칩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구글이 자체 AI 전용칩인 TPU v5p를 출시한 가운데 메타도 맞춤형 AI 칩인 MTIA V2를 공개(4.10일)하였다. 또한 인텔은 '가우디3' 칩을 공개하고 2024년 3/4분기 중 델(Dell), HP, 슈퍼마이크로 등 PC 및 서버 업체에 납품할 계획임을 발표(인텔 비전 2024, 4.9일)하였다.

15) 팬데믹으로 지연되었던 PC 구매 교체수요 주기 도래, Windows 10 서비스 종료(2025.10.14일) 및 AI PC 출시에 따른 기존 PC 교체 및 메모리반도체 채용량 증대를 전망하고 있다.

16) AI PC는 AI 작업을 최적화·가속화하도록 설계된 전용 AI 가속기나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이 장착된 PC이며, 클라우드(외부 서버) 연결 없이 개인용 PC에 생성형 AI를 탑재하여 보안에 유리하다. 인텔에 이어 AMD, 웨이크, 엔비디아 및 애플도 차세대 칩 개발을 통해 AI PC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7) 모바일 OEM 업체들의 상반기 중 적극적인 도매매출(Sell-in) 영향으로 유통재고가 다소 상승하여 하반기 중 반도체 수요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8) 생성형 AI 기술의 고도화, AI 기술의 학습(training)에서 추론(inferencing)으로 확산 등 AI 관련 수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2018년 설치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서버(일반 서버) 교체 수요도 점차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9) 메모리반도체 가격 전망(전년동기대비, Trendforce)

DRAM 고정가격 등락률 : (2024.1/4) +15.0% → (2/4) +11.8% → (3/4) +11.2% → (4/4) +5.0%
낸드 고정가격 등락률 : (2024.1/4) +18.0% → (2/4) +6.4% → (3/4) +7.5% → (4/4)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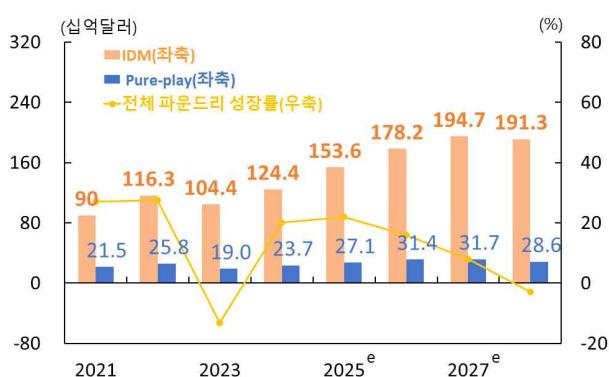
3. 파운드리도 지난해의 부진²⁰⁾에서 벗어나 AI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업황이 점차 개선²¹⁾될 전망이다. Pure-Play 파운드리 기업과 종합반도체기업(IDM)들 간 경쟁이 심화²²⁾되는 가운데, 선단공정, 첨단 패키징²³⁾ 부문 등 선행 기술 우위에 기반한 Pure-play 업체의 성장세가 IDM을 상회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²⁴⁾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편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을 발표하면서 인텔, TSMC에 이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²⁵⁾을 발표(4.15일)하였다. 이러한 미국 상무부의 보조금 지원 조치는 반도체 공급망의 자급체제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첨단반도체 생산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지원 노력²⁶⁾²⁷⁾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협력 이외에도 주요 인프라(도로망·전기·용수 등) 지원, 고학력자 수급 및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2028년 중 파운드리 시장은 연평균 10.4% 성장 예상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규모는 약 4,500억 달러로 약 56,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그림 1.6]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전망



자료: Techinsights

[표 1.2]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계획

(단위 : 억달러)			
기업명	종류	위치	투자규모
인텔	반도체	애리조나	320
	반도체	오하이오	280
	패키징	뉴멕시코	75
	R&D	오리건	360
TSMC	반도체	애리조나	650
삼성전자	반도체	텍사스	450
마이크론	반도체	아이아호	250
SK 하이닉스	반도체	뉴욕주	1,000
	패키징	인디애나	40

자료: SIA(미국 반도체산업협회)

20)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2023년 중 1,23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1,421억 달러)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1년 이후 최대 매출 감소치이다.

21) TSMC는 2024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을 AI 분야를 제외한 스마트폰, PC 교체 수요 점체 및 최근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 둔화) 등 자동차 반도체 수주량 감소로 당초 예상치 20%에서 10%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AI 관련 매출은 매년 50% 씩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TSMC 실적발표, 4.18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이 1/4분기 저점 을 찍고 2/4분기부터 반등하여 전기대비 두자리 수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삼성전자 실적발표, 4.30일)

22) Pure-Play Foundry는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로 TSMC(대만), UMC(대만), GlobalFoundry(미국), SMIC(중국) 등이 있다.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은 위탁생산과 동시에 자체 IC, 기타 반도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반도체 회사로 삼성전자, 인텔 등이 해당된다.

23) TSMC의 "CoWoS(Chip on Wafer on Substrate)"는 중간기판(인터포저 판) 위에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올리는 기술로 기존 패키징 보다 면적이 줄고, 칩 간 연결을 빠르게 하여 고성능컴퓨팅(HPC), AI,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응용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4) Pure-Play 파운드리 기업이 2023년 중 파운드리 전체 시장의 약 84% 이상을 차지하였고, 2028년 중 87%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

25) (1차) 英 BAE시스템스, 3,500만 달러 / (2차) 美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억 6,200만 달러 / (3차) 美 글로벌파운드리스, 15 억 달러 / (4차) 美 인텔, 85억 달러, 110억 달러(대출지원) / (5차) TSMC, 66억 달러, 50억 달러(대출지원) / (6차) 삼성전자 64억 달러 / (7차) 마이크론 61억 달러, 75억 달러(대출지원)

26) 독일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인텔에 100억 유로 및 TSMC에 50억 유로 등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7) TSMC는 구마모토 공장 건설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4,760억엔)받았으며, 구마모토 1공장 개소(2.25일) 후 2027년 가동을 목표로 2공장도 건설 계획 중이다.

참고문헌

노근창(2024), “대만 반도체 산업”, 현대차증권

류형근(2024), “HBM, 공급 업계의 고민에서 찾는 기회”, 삼성증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1~3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1~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삼성전자(2024),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자료”

송명섭(2024), “It's All about HBM”, 하이투자증권

신석화(2024), “메모리 반도체 구조적 성장을 보여주는 원년”, 대신증권

SK하이닉스(2024),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자료”

한국무역협회(2024),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한국반도체산업협회(2024), “KSIA ISSUE REPORT”

한동희 등(2024), “AI 시대의 IT Hardware”, SK증권

Shrish Pant(2024), “Forecast: DRAM Market Statistics, Supply and Demand, Worldwide”, Gartner

Joseph Unsworth(2024), “Forecast: NAND Flash Market Statistics, Supply and Demand, Worldwide”, G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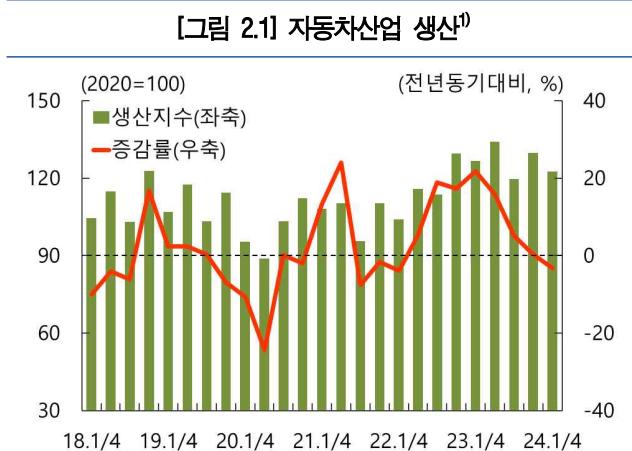
II 자동차 [울산본부 최문정 과장, 안주현 조사역]

- 자동차산업은 2024년 1/4분기 중 일부 업체 생산라인 조정에 따른 가동중단 및 고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생산(-3.7%, 대수기준, 전년동기대비)과 내수(-11.7%)가 감소하였으며, 수출(+0.6%) 증가세가 전분기에 비해 둔화되었다.
- 2/4분기 중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높은 생산수준에 대한 기저효과로 감소할 전망이며, 내수는 전기차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겠으나, 수출은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SUV·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견조한 수요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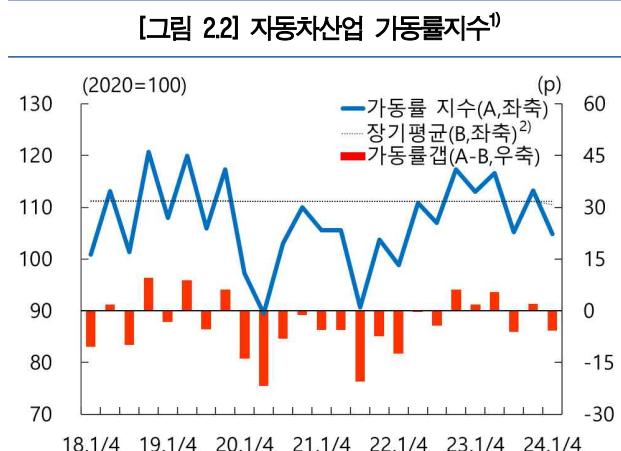
1. 2024년 1/4분기 중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기준)은 주요 업체의 공장 설비공사에 따른 가동중단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였다. 자동차산업 생산지수(122.7)는 전년동기대비 3.2% 하락하였고, 가동률지수(104.8)는 장기평균(110.6)을 하회하였다. 이는 현대차 주요 공장에서 친환경차 생산확대를 위한 설비공사²⁸⁾를 진행함에 따라 수주간 가동이 중단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23.2%)와 상용차(-2.3%) 모두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중 SUV 생산(+5.9%)은 증가하였다.

자동차 생산은 감소로 전환



주: 1) 자동차부품 포함
자료: 통계청

가동률은 장기평균을 하회



주: 1) 자동차부품 포함
2) 최근 10년 평균(2014.1/4분기~2024.4/4분기)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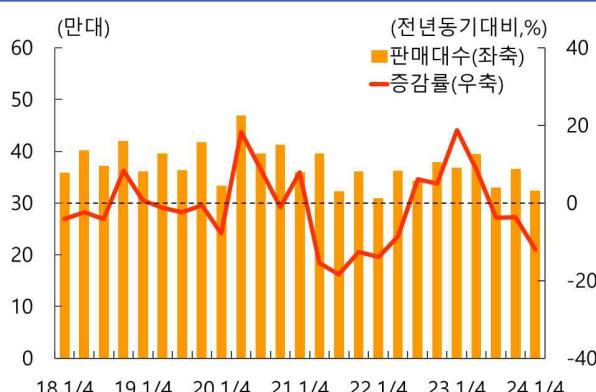
28) 현대차 아산공장은 전기차 설비공사(23.12.31~24.2.4.), 울산 3공장은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라인 공사(24.2.4~2.18.), 전주공장은 전기·수소버스 생산 설비공사(23.12.30~2.16)를 진행하여 해당 기간 가동이 중단되었다.

2. 자동차 내수판매(대수 및 국산차 기준)는 하이브리드차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속, 개별소비세 인하종료, 전기차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하였다.²⁹⁾ 차종별로는 승용차와 상용차 판매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8.6%, 27.5% 감소³⁰⁾하였다. 이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종료³¹⁾ 및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에 주로 기인한다.³²⁾ 특히 전기차(비중 7.9%)가 29.3% 큰 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충전 인프라 부족, 안전성 문제 등으로 수요가 둔화되며 캐즘³³⁾ 현상이 이어지는 한편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축소³⁴⁾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비중 34.5%)와 SUV(비중 51.2%)는 각각 39.6%, 5.3% 증가하였다.

3. 자동차 수출은 북미시장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도 유럽시장의 부진으로 0.6% 증가(대수기준)에 그쳤으며, 수출액(233.4억 달러, +2.1%) 증가세도 둔화되었다. 지역별로 미국(대수기준, 비중 60.9%)은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및 SUV 등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어 18.6% 증가하였으나, 유럽(비중 19.3%)은 보조금 감소³⁵⁾ 등에 따른 전기차 수요둔화와 경기 부진으로 21.0% 감소하였다. 차종별로는 SUV(비중 75.1%)가 7.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비중 95.9%) 수출이 0.4% 감소한 반면, 상용차(비중 4.1%)는 32.9% 증가하였다. 친환경차(비중 25.8%)의 경우, 전기차 수요둔화의 영향으로 전기차 수출은 감소(-10.7%) 하였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증가(+5.5%)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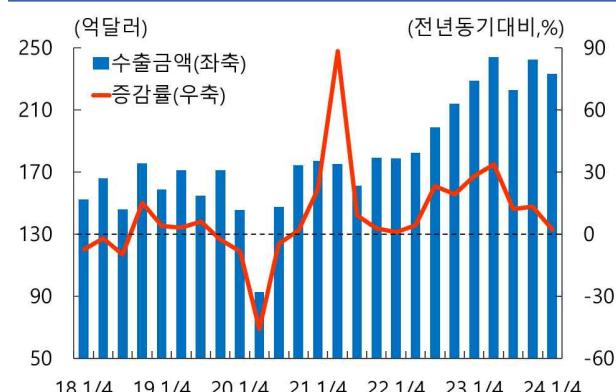
완성차 내수판매는 상당 폭 감소

[그림 2.3] 완성차 내수판매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 수출액 증가세 둔화

[그림 2.4] 자동차산업 수출¹⁾

주: 1) MTI코드 741, 742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9) 수입차 판매(내수판매 중 14.4%)는 13.3% 감소하였으며,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전체 내수판매는 11.9% 감소하였다.

30)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버스는 13.3%, 트럭은 30.8% 내수판매가 감소하였다.

31)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조치(5.0% → 3.5%)가 2023년 7월 1일부터 5.0%로 환원되었다.

32) 판매부진으로 올해 출시된 현대차·기아의 주요 연식변경 승용차 평균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1/4분기 중 국내 신규 등록차량의 평균 취득가액이 전년대비 1.9% 낮아진(2023년 4,911만원 → 2024년 4,819만원) 것으로 나타났다.

33) 상품 출시 후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대중화되기 직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34)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르면 전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량 가격 기준이 작년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줄었으며, 전기차의 성능보조금 또한 작년 대비 100만원 줄었다.

35) 독일은 2023년 12월 18일 이후 전기차에 지급되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프랑스는 2024년 2월 13일 고소득 가구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기존 5,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축소하였다.

향후 전망

4. 2/4분기 중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높은 생산수준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업체의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설비공사가 1/4분기 중 완료되고 가동이 재개됨에 따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러나 2/4분기 중에도 일부 공장설비 공사가 진행³⁷⁾되고, 지난해 2/4분기 생산이 높은 국내외 대기수요 및 부품수급 정상화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³⁸⁾을 기록한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내수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할부금리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종료 등 세제혜택이 축소된 것도 소비자의 구매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³⁹⁾ 또한 전기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이 축소되는 등 수요둔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수판매 부진에 대응하여 업체들이 가격인하 등 판촉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및 SUV 등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요로 내수 감소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6. 수출은 전기차 수요둔화가 이어지겠으나 SUV,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 안전성 문제 등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유럽지역에서 친환경차 전환정책의 속도 조절⁴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전기차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은 양호한 가계 소비여건에 힘입어 SUV, 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이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유럽지역은 경기부진과 소비회복 지연, 전기차 보조금 삭감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⁴¹⁾ 한편, 원/달러 환율상승⁴²⁾으로 인한 수출액 증대효과도 일부 나타나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6) 설비공사를 마친 현대차 울산 3공장은 코나 ·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산하며, 아산공장은 전기차 아이오닉 7을 생산할 예정이다.

37) 현대차 울산 4공장은 4월 말부터 약 2주간 신형 팰리세이드 설비공사를 진행하여 가동을 중단하였다.

38) 2023년 2/4분기 중 자동차 생산지수(134.2)는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39)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신차 구매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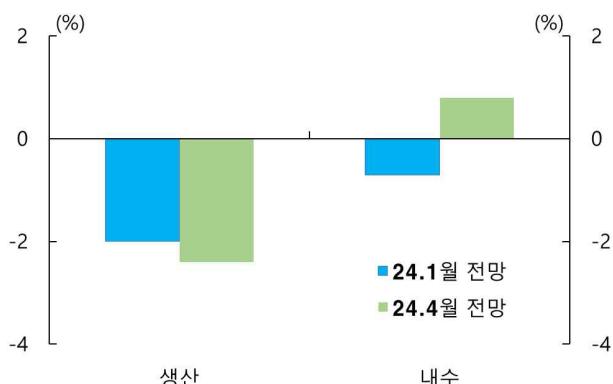
40) 2024.2월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의 요구에 맞춰 전기차 도입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2023.9월 영국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정책을 5년 연기했고, 유럽의회 다수당인 유럽국민당(EPP)이 금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에 GM은 금년 상반기 북미에서 전기차 40만대를 생산할 계획을 철회하였고, 포드는 전기차 생산계획을 연기하고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목표를 5년 연기하였다.

41) 2024.4월 중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87.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전기차 수출은 12.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출은 북미지역이 전년동월대비 32.1% 증가한 반면 유럽지역은 18.3%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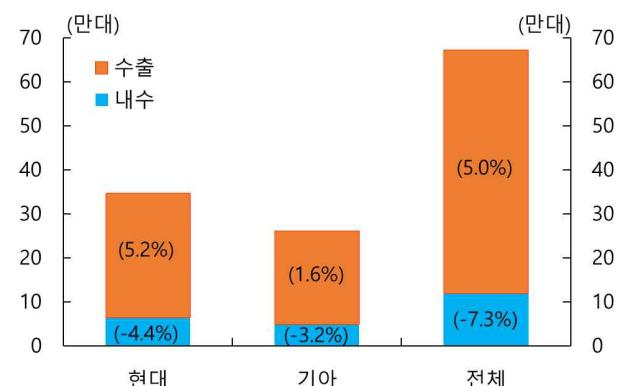
42) 2024.4월 중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67.8로, 전년동월 평균(1,320.0) 대비 3.6% 상승하였다.

연간 자동차 생산 전망은 하향하였으나 내수판매 전망은 상향

4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감소

[그림 2.5] 2024년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내수판매 전망¹⁾²⁾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기준
자료: S&P Global Mobility

[그림 2.6] 4월 자동차 내수판매 및 수출¹⁾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각 자동차제조사, 언론사 종합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수출입 동향” (1월, 2월, 3월, 4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 “자동차통계월보(2024.3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 “2024년 3월 자동차산업 동향”

현대자동차그룹(2024), “기아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현대자동차그룹(2024), “현대자동차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환경부(2024),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KDB미래전략연구소(2024), “독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과 국내 영향”

Administration française, “Bonus écologique pour une voitur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6844>

Boudette, N. E., (2024), “Ford Slows Its Push Into Electric Vehicles,” The New York Times

Couchman, C., and Fulthorpe, M. (2024), “Around the World Global Sales and Production Forecast,” S&P Global Mobility Webinar April 2024

Davenport, C., (2024), “Biden Administration Is Said to Slow Early Stage of Shift to Electric Cars,” The New York Times

III 석유화학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과장]

- 석유화학산업은 2024년 1/4분기 중 제품 공급과잉으로 생산과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2/4분기 생산과 수출은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향후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국 대비 원가경쟁력이 낮은 범용제품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향

1. 2024년 1/4분기 중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갔다. 더딘 세계경제 성장세⁴³⁾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둔화⁴⁴⁾된데다, 주요 생산국의 설비 증설⁴⁵⁾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국내 가동률이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설비를 증설⁴⁶⁾하고 자급률을 높임에 따라 범용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온 국내기업의 생산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보유중인 나프타기반 생산설비의 원가경쟁력 열위⁴⁷⁾도 석유화학 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석유화학 생산 감소

[그림 3.1] 석유화학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석유화학 가동률지수 하락

[그림 3.2] 석유화학 가동률지수



자료: 통계청

43) IMF(24.4월)는 2024년 중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3.2%를 기록하며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00~'19년)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IMF는 국내 석유화학제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가 2024년 중 둔화(23년 성장률 5.2% → 24년 성장률 전망치 4.6%)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44)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은 경기둔화에 따른 전방수요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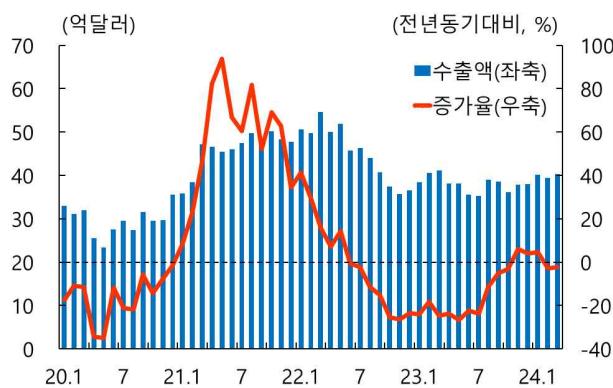
45) 전세계 에틸렌 설비는 2020~2023년 4.3mmt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수요는 1.7mmt 증가에 그쳤다.

46) 중국은 2020년부터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본격적으로 증설해 2022년 중 생산능력 1위 국가(에틸렌 기준 생산능력, 20년 3.2mmt → 21년 4.0mmt → 22년 4.6mmt → 23년 5.2mmt)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이 2025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47) NCC(나프타분해시설)와 ECC(에탄분해시설)의 에틸렌 생산원가 차이(NCC원가/톤-ECC원가/톤)는 유가가 50달러/배럴일 때 230달러이며, 유가가 상승할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어 NCC의 원가경쟁력이 저하된다.

2.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하였다. 수출물량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6.4%)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⁴⁸⁾에도 수출단가가 석유화학제품 공급과잉으로 하락(-6.2%)하면서 수출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유럽⁴⁹⁾ 및 중동⁵⁰⁾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아시아(중국 제외), 북미지역 등에서 증가하였다. 제품별로는 기초유분 등이 증가하였으나 합성수지 등이 감소하였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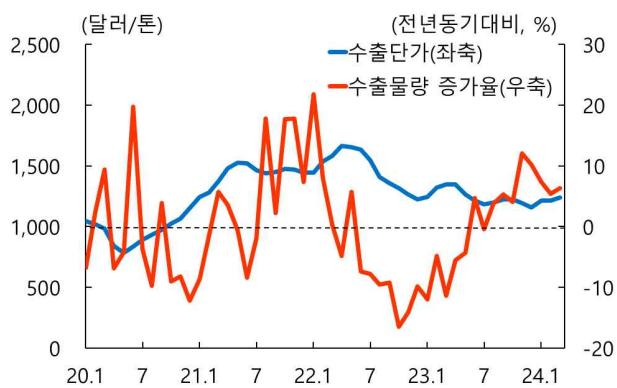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소폭 감소

[그림 3.3] 석유화학제품 수출¹⁾

주: 1) 통관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는 하락, 수출물량은 확대

[그림 3.4] 석유화학제품 수출 단가¹⁾ 및 물량

주: 1) (수출액)/(수출물량)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對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 부진 지속

[표 3.1] 지역별 석유화학제품 수출¹⁾²⁾

	2022년			2023.4/4		2024.1/4		2024.3월	
	수출액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수출액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수출액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수출액	[100.0]	543.2	(-1.4)	112.0	(2.2)	120.0	(-0.3)	40.3	(-2.3)
아시아	[67.2]	364.9	(-5.4)	78.4	(2.5)	76.9	(1.3)	25.0	(-2.6)
(중국)	[38.1]	207.0	(-5.4)	43.6	(-6.3)	41.5	(-3.5)	13.2	(-6.6)
(동남아)	[18.3]	99.4	(-10.1)	20.9	(14.9)	21.7	(13.8)	7.3	(2.7)
유럽	[14.9]	81.2	(1.9)	16.3	(-2.7)	20.4	(-10.5)	6.8	(-12.5)
북미	[8.6]	46.8	(23.3)	7.8	(6.6)	12.1	(9.0)	5.0	(25.1)
중남미	[4.1]	22.4	(0.0)	4.0	(4.8)	4.8	(2.8)	1.6	(-11.6)
중동	[2.9]	15.6	(22.9)	2.7	(-7.1)	2.9	(-14.4)	0.9	(-21.8)
기타	[2.3]	12.4	(-3.1)	2.7	(23.5)	2.9	(16.6)	1.1	(19.8)

주: 1) MTI 2단위 21(석유화학제품) 기준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내는 2022년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8) 2024년 1/4분기 중 Dubai유는 81.5달러/배럴(분기 평균)로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였다.

49)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해상운임(월평균 SCFI지수, 23.12월 1097.9 → 24.1월 2025.5 → 2월 2168.3 → 3월 1842.6)이 큰 폭 상승해 유럽으로의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50) 라마단 기간(3.10일~4.9일) 중 국내 석유화학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중동 현지업체의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주었다.

51) 2024년 1/4분기 중 수출증감률(전년동기대비) : 기초유분 15.9%, 합성원료 5.3%, 합성수지 -4.4%, 중간원료 -6.6%

향후 전망

3. 2/4분기 중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공급과잉 등 부정적인 대외여건에도 기저효과⁵²⁾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IT 부문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반등 조짐⁵³⁾을 보이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다만,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확대,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기조적 업황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고유가 지속⁵⁴⁾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지표(에틸렌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을 큰 폭 하회⁵⁵⁾하고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4.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범용제품 구조조정⁵⁶⁾에 돌입하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⁵⁷⁾할 것으로 보인다. 범용 석유화학 사업 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글로벌 환경 규제⁵⁸⁾가 강화됨에 따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전환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에 대규모 투자지출이 필요한 만큼 기업별 재무여력이 투자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제품 제조업 매출전망은 기준치(100)를 하회

[그림 3.5] 화학제품 제조업 전망BSI



자료: 한국은행

에틸렌 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지속

[그림 3.6] 에틸렌 스프레드¹⁾



주: 1) (에틸렌 가격) - (나프타 가격)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산업통상자원부

52) 2023년 2/4분기 중 진행된 주요 석유화학 공장(23.4~5월 LG화학 여수공장, 23.4~6월 여천NCC 여수공장, 23.4~6월 한화토탈 대산공장 등)의 대규모 정기보수 기저효과로 금년 2분기 중 생산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3) 22.9월부터 기준치(50)를 하회하던 글로벌 제조업 PMI는 24.2월 18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50.3)하였고, 24.3월과 4월도 각각 기준치를 상회한 50.6과 50.3을 기록하였다.

54) 국제유가(Dubai유 기준, 달러/배럴)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23.12월 이후 상승(23.12월 77.2 → 24.1월 78.9 → 2월 81.2 → 3월 84.7 → 4월 89.4, 월평균)세를 이어가고 있다.

55) 2024년 1/4분기 중 에틸렌 스프레드는 195달러/톤을 기록하여 손익분기점(300달러/톤)을 하회하였다.

56) 모니터링 결과 LG화학은 여수 NCC 2공장 매각 및 스티렌모노머(스티로폼 등 원료) 생산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며, 롯데케미칼은 울산공장 인력 재배치 및 말레이시아 자회사(LCT아이탄)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7) 2023년 중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22년 대비 23년 연구개발비/매출액 상승분, LG화학 +0.4%p, 한화솔루션 +0.9%p, 롯데케미칼 +0.1%p)하였으며, 금년에도 고부가·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58) UN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체 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다루는 국제협약을 추진 중이며, 미국도 석유화학 등 12개 탄소집약적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정경쟁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3월 수출입 동향”

한국수출입은행(2023),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3대 리스크 점검”

IMF(2024), “World Economic Outlook”

IV 철강 [포항본부 박상순 과장]

- 2024년 1/4분기 중 철강제품 생산은 보합 수준을 유지(+0.5%, 전년동기대비)하였으며, 수출은 물량 증가(+3.8%)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9.0%)의 영향으로 감소(-5.6%)하였다.
- 향후 철강제품 생산 및 수출은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불확실성,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향

1. 2024.1/4분기 중 철강제품 생산은 전방산업의 방향성이 혼재되며 보합 수준을 유지(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하였다. 철강제품 수요는 가전⁵⁹⁾, 기계⁶⁰⁾, 자동차⁶¹⁾ 등에서는 부진한 반면, 건설에서는 정부의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⁶²⁾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국 등 후발국으로부터의 저가 철강재 수입이 증가⁶³⁾하면서 국내 철강제품 생산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차 철강제품 생산은 보합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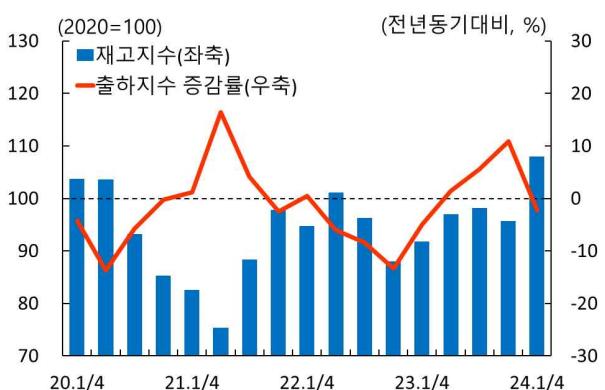
[그림 4.1] 1차 철강제품¹⁾ 생산지수

주: 1) 1차 철강제품은 슬래브, 블룸, 빌릿 등의 반제품으로 추가 공정을 통해 판매, 봉형강 등의 완제품으로 제작

자료: 통계청

1차 철강제품 출하 감소 및 재고 수준 증가

[그림 4.2] 1차 철강제품 출하 및 재고지수



자료: 통계청

59) 2024.1/4분기 가전제품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여 2023.4/4분기(-2.9%)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60) 2024.1/4분기 기계류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하여 2023.4/4분기(-10.9%)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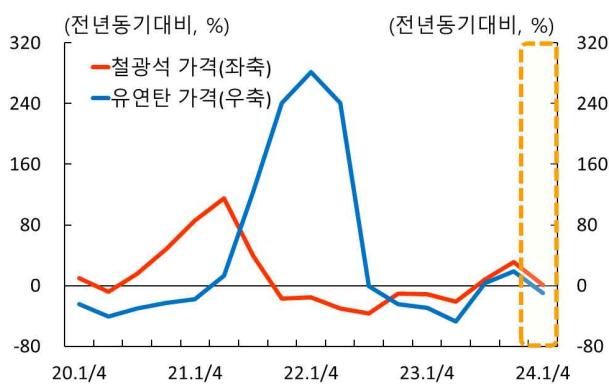
61) 2024.1/4분기 자동차생산대수는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여 2023.4/4분기(+1.7%) 대비 감소 전환하였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62) 정부는 2024.1/4분기 중 2024년 SOC 사업 예산현액(25.1조 원)의 35.4%인 8.9조 원을 집행하였다.(기획재정부, 2024.4.15일)

63) 전체 중후판(MTI 6131, 선박 건조용으로 주로 사용) 수입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2022년 33.6% → 2023년 48.5% → 2024.1/4분기 51.8%)하고 있다.

2. 철강제품의 주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보합 수준을 유지(전년동기대비 0.8% 상승)하였으며, 유연탄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9.6%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내 수요 부진⁶⁴⁾에 따른 중국 조강생산량 감소⁶⁵⁾ 등에 주로 기인한다. 국내 조강⁶⁶⁾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하였다.

철광석 가격은 보합 수준 유지, 유연탄 가격은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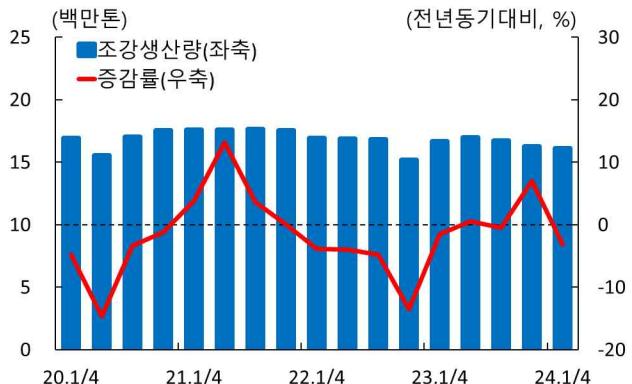
[그림 4.3] 철광석¹⁾ 및 유연탄²⁾ 가격 상승률

주: 1) 중국 텐진항 철광석 수입가(CFR, Fe 62%) 기준
2) 호주 원료탄 수출가(FOB, Australia Premium Low Vol) 기준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내 조강생산량은 감소

[그림 4.4] 국내 조강생산량 추이



자료: 한국철강협회,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3. 2024.1/4분기 중 철강제품(MTI 61) 수출(83.2억 달러)은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하였다. 수출물량은 중국에 대한 물량이 감소(-9.5%)하였으나, 미국(+46.5%), 일본(+6.3%) 및 인도(+14.6%)로의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반면, 수출단가는 중국 및 일본산 철강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9.0% 하락하였다. 미국(+7.4%)⁶⁷⁾으로의 수출금액은 증가한 반면, 중국(-9.6%), 일본(-7.7%), 인도(-1.1%)로의 수출금액은 감소하였다.⁶⁸⁾

64) 2024.1/4분기 중국 신규 주택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8.3% 감소하여 2023.4/4분기(-9.9%)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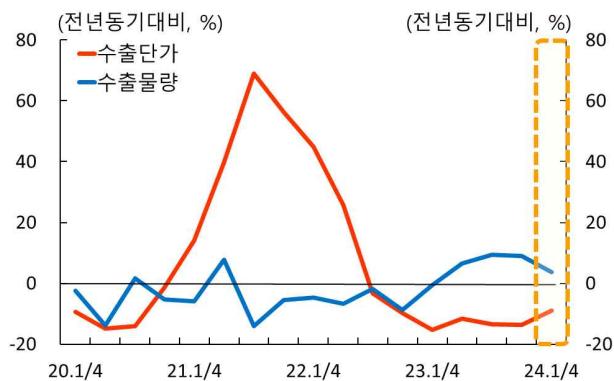
65) 2024.1/4분기 중국 조강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하여 2023.4/4분기(-3.5%)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중국 국가통계국)

66) 조강(粗鋼, crude steel)은 강철의 제조공정 중 첫째로 나오는 강괴(鋼塊)로, 가공된 철강제품을 만드는 기초재료가 된다.

67)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모든 생산라인이 태풍 힌남노(2022년 9월 6일)로 인해 침수되어 미국으로의 주요 철강제품 수출이 2023.1/4분기 중 지연되었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다. 2024.1/4분기 중 미국으로의 열연강판(MTI 6132)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84.8% 증가하였다.

68) 미국 외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국 내수 수요 부진으로 인하여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 2024.1/4분기 중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물량은 2,580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0.7% 증가하였다.(중국 해관총서)

철강제품 수출물량은 증가, 수출단가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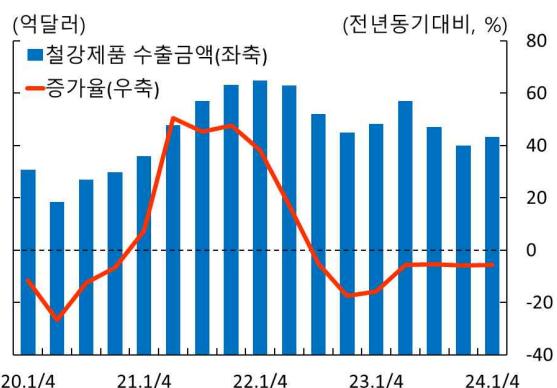
【그림 4.5】 철강제품 수출물량 및 단가¹⁾ 추이

주: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금액 및 수출물량 기준,
자체 시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철강제품 수출금액은 감소

【그림 4.6】 철강제품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요 수출 대상국별 철강제품 수출금액은 미국은 증가, 중국·일본·인도는 감소

【표 4.1】 2024.1/4분기 주요 수출 대상국별 철강제품 수출 증가율

	전체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전년동기대비, %)
수출금액	-5.6	-9.6	7.4	-7.7	-1.1	
수출물량	3.8	-9.5	46.5	6.3	14.6	
수출단가	-9.0	-0.1	-26.7	-13.1	-13.7	

향후 전망

4. 향후 철강업 생산은 2024년 건설투자 부진⁶⁹⁾, 주요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철강협회(2024.4월)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 고비용 상황,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2024년 철강 수요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하였다.⁷⁰⁾

5. 철강제품 수출은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단가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하락압력을 받겠으나, 구체적 수준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9)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2월)

70) 세계철강협회는 글로벌 철강 수요가 2024년 1.7% 증가(2023.10월 전망치(+1.9%) 대비 0.2%p 하향 조정), 2025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 철강 수요는 2024년 0.8% 감소, 2025년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24.4.17.일)

참고문헌

동국씨엠(2024)·동국제강(2024),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스틸데일리(2024), 신문자료 및 DB센터

키움증권(2024), “Steel&Metal Weekly”

통계청(2024), “산업활동동향”

포스코홀딩스(2024), “2024.1Q 실적발표 기업설명회”

하나증권(2024), “철강금속 Weekly”

하이투자증권(2024), “Steel Weekly”

한국광해광업공단(2024), “주간 광물가격 동향” 및 “월간자원 Insight”

한국무역협회(2024),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한국은행(2024),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철강협회(2024), “주간 철강산업 동향” 및 “월간 철강보”

현대제철(2024),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설명회”

World Steel Association(2024), “Crude Steel Production”

World Steel Association(2024),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April 2024”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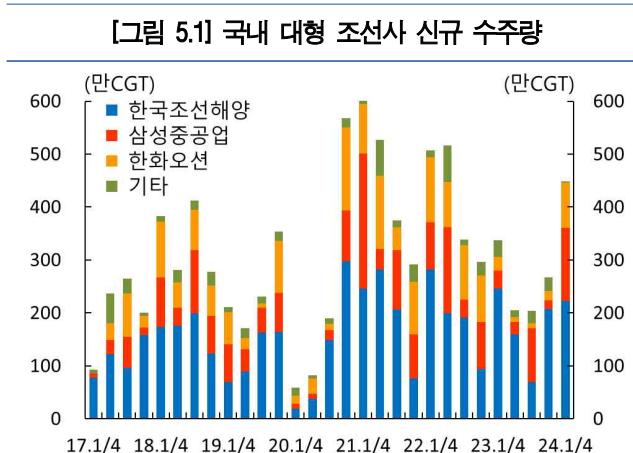
조선 [경남본부 황나윤 조사역]

- 2024년 1/4분기 중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LNG선, 가스선, 유조선이 큰 폭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하였다. 수주 잔량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선박 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 향후 조선업의 수익성은 기수주한 고가 선박의 건조 비중 확대, 높은 신조선가 지속 등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인력난 등의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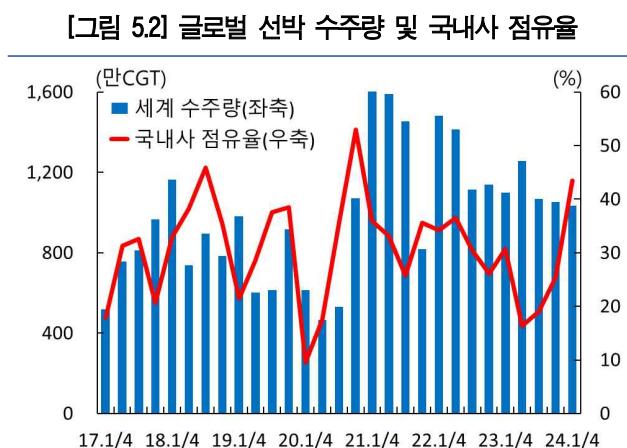
1. 2024년 1/4분기 중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448.8만CGT**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하였다.⁷¹⁾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30.8%에서 43.4%로 큰 폭 상승하였다. 국내 조선사의 선종별 수주를 살펴보면, LNG선(248.6만CGT, +67.8%), 가스선(106.4만 CGT, 전년동기대비 +277.4%), 유조선⁷²⁾(79.9만CGT, +71.4%)이 큰 폭 증가하면서 수주 증가세를 이끌었다. 컨테이너선(전년동기대비 - 109.5만CGT)은 그간의 과잉 공급, 조선사들의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 강화 등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신규 수주가 없었다.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자료: Clarksons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국내 조선사 점유율은 상승



자료: Clark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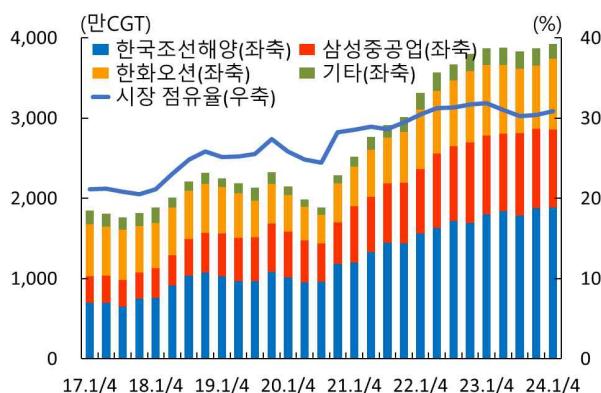
71) 국가별로는 중국 -0.7%, 일본 -89.7%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신규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였다.(Clarksons)

72) 탱커 공급 부족 심화, 운임 상승, 고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글로벌 원유탱커(VLCC) 발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 2024년 1/4분기 말 국내 조선사 수주 잔량은 3,927.6만CGT로 전분기(3,873.0만CGT)대비 1.4% 증가하였다. 선종별 수주 잔량은 LNG선이 2,101.6만CGT로 가장 높은 비중(54.8%)을 차지하며, 이어 컨테이너선(963.9만CGT, 25.1%), 가스선(311.8만CGT, 8.1%), 유조선(276.4만CGT,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증가, 시장점유율 소폭 반등

[그림 5.3]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및 시장점유율



자료: Clarksons

수주잔량은 LNG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등의 순

[표 5.1] 국내 조선사 1/4분기 말 주요 선종별 수주잔량

	LNG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²⁾	유조선 ³⁾
국내전체	2,101.6	963.9	311.8	276.4
한국 ¹⁾	868.1	494.0	262.8	165.6
삼성	619.7	283.7	20.2	6.0
한화	613.8	139.6	28.9	8.8

주: 1)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통합법인

2) LPG, 암모니아, LCO2 등 운반선(LNG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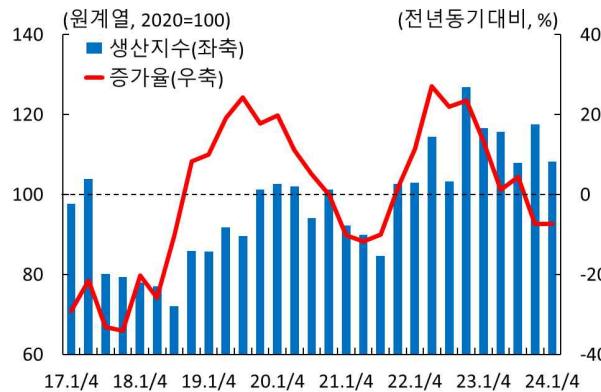
3) 원유운반선 및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자료: Clarksons

3. 2024년 1/4분기 중 선박 생산은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으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였다. 한편 1/4분기 중 선박 수출 금액은 고선가물량의 인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64.3% 증가한 66.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선박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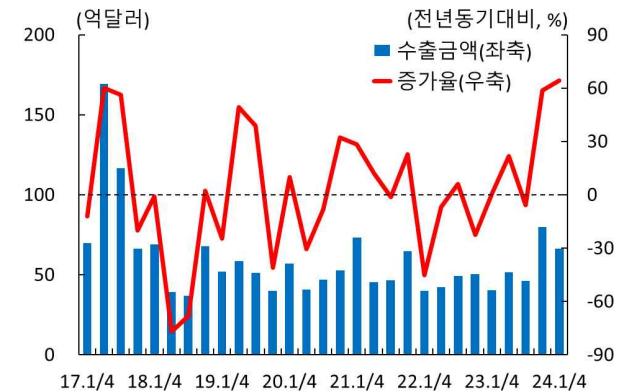
[그림 5.4] 전국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선박 수출금액은 증가

[그림 5.5] 선박 수출금액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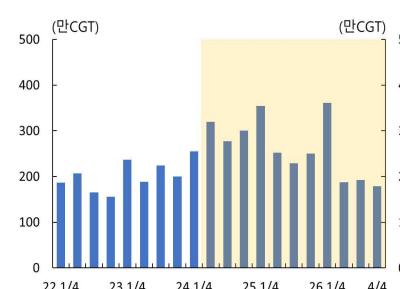
향후 전망

4.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증가세는 글로벌 선박 발주 감소 등으로 점차 둔화되겠으나 초대형가스선 등 고부가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발주가 강세인 가스선⁷³⁾(VLAC) 및 탱커선(VLCC, Suezmax) 등 고부가선박 중심으로 수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NG선의 경우 2024년 2/4분기 이후에는 2022~23년 수주량의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LNG 수요 증가⁷⁴⁾ 및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⁷⁵⁾에 따른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수요 등으로 수주가 견조할 전망이다. 특수선 부문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글로벌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조선사들의 수익성은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높은 수주잔고로 협상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후판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⁷⁶⁾, 신조선가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수익성 개선에 유리한 여건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높아진 수준의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인력난 등은 중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 채용,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외주비 인상 등에 힘입어 인력사정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⁷⁷⁾, 숙련공 부족에 따른 공정 지연, 인도 차질 등은 리스크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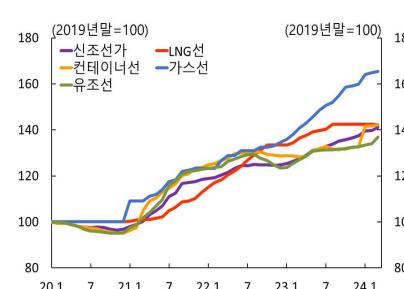
생산 및 수주는 양호할 전망

[그림 5.6] 국내 조선사 인도(예정)량¹⁾

주: 1) 음영 부분은 인도예정량
자료: Clarksons

높은 선가로 수익성 개선 여건 지속

[그림 5.7] 신조선가



자료: Clarksons

인력문제는 상존하는 리스크

[그림 5.8] 인력문제 응답 비율¹⁾

주: 1) 경남지역 기준
자료: 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

73)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은 글로벌 탈탄소화 기조와 맞물려 2023년부터 발주되기 시작한 新선종이다.

74) 최근 카타르 에너지가 2030년까지 LNG 생산량을 연간 1,600만톤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24.2.25)

75) 선박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열위 선박(D·E등급)의 운항을 제한하는 CII 등급이 올해 5월 내 부여될 예정임에 따라 IMO CII 규제가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EU 배출권거래제(ETS)도 해운업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76) 24.4월 후판가격(포스코, 유통가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8.3%를 기록하였다.(스틸데일리)

77) 정부는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개소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매년 1,0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3.20일,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23),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2023. 11. 7.)”

산업통상자원부(2024), “K-조선 미래 핵심 인재 민관이 함께 양성한다(2024. 3. 20.)”

최광식·오지훈(2024), “호황의 향기2: 안정해져라”, 다올투자증권

한승한(2024), “안정적인 항해, 선택지는 많다”, SK증권

이나예 외(2024), “규제의 파고를 넘어”, 한국투자증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금액(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지역 기업경기조사”

Clarksons, “신규수주·수주잔량·신조선가 통계”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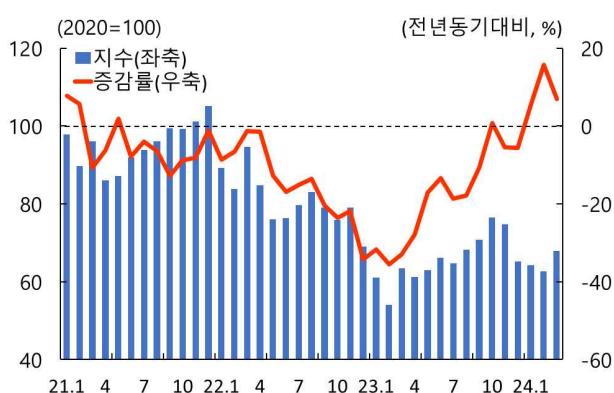
디스플레이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성수 과장, 이상원 조사역]

- 2024년 1/4분기 중 디스플레이 생산 및 수출은 전방산업의 업황개선 및 OLED 신규 수요에 힘입어 개선되는 모습이다.
- 향후 디스플레이 생산은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수출은 글로벌 경쟁심화로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최근 동향

1. 2024년 1/4분기 중 디스플레이 생산은 IT기기의 OLED 채택 확대 및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 개선으로 3년간 지속된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전년동기대비+9.1%)되었다.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점유율 확대⁷⁸⁾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의 주요 고객사 IT 제품에 OLED 탑재가 시작⁷⁹⁾되고 AI 탑재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등 IT기기 수요가 다소 개선⁸⁰⁾되면서 디스플레이 생산지수가 3년 만에 전년동기대비 증가로 전환되고 출하량 증가세도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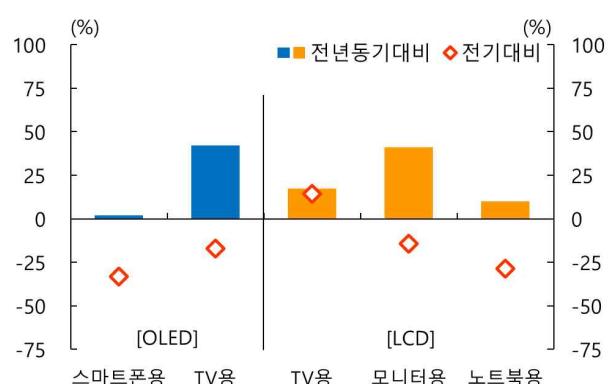
디스플레이 생산 개선세가 지속

[그림 6.1] 디스플레이 생산지수¹⁾

주: 1) 전자 부품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국내업체의 글로벌 패널 출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는 지속

[그림 6.2] 2024년 1/4분기 중 국내업체 패널 출하 증가율¹⁾

주: 1) 수량 기준

자료: Omdia

78)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는 중소형 OLED패널 출하량 기준 중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1/4분기 35.9%에서 2024년 1/4분기 43.9%로 확대되었으나, 국내 기업(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은 같은 기간 64.5%에서 56.0%로 하락하였다.(Om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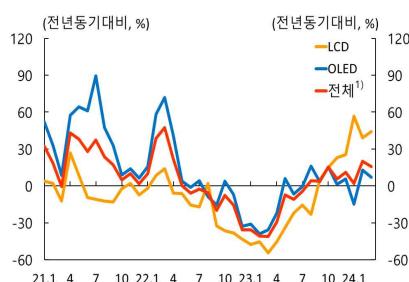
79) 애플이 올해 5월에 출시할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이 전량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80) 삼성전자의 AI 탑재 스마트폰인 갤럭시S24시리즈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1/4분기 중 IT기기 생산량(6,450만 대)이 목표치(5,300만대)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수출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개선세가 지속(전년동기대비 +12.4%)되었다. LCD 및 OLED 등 모든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LCD는 TV 및 모니터 등 전방산업의 수요 개선으로 상승세(전년동기대비 +46.6%)를 이어나갔다. OLED의 경우 핸드폰 시장에서 OLED 보급⁸¹⁾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사의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⁸²⁾으로 인해 소폭 증가하였다(전년동기대비 +0.8%). 한편 국가별로는 對베트남 수출중심 구조가 다소 완화(전체 수출 중 비중 65.9%(23.4/4분기) → 54.2%(24.1/4분기))되었다.⁸³⁾

3. 패널 가격은 유형 및 크기별로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형 OLED 패널 가격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급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분기말 대비 19.0%, 전분기말 대비 15.6% 하락하였다.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여력 악화로 고급형 TV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형 OLED는 부진(전년동분기말대비 -14.0%, 전분기말대비 -5.1%)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 LCD는 수요 증가로 견조한 가격 흐름(전년동분기말대비 +35.4%, 전분기말대비 +4.8%)을 보였다.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세 확대

[그림 6.3] 디스플레이 패널별 수출 증가율¹⁾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MTI 836)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對베트남 수출 증가세 및 對중국 수출 감소세 추세가 일단락

[표 6.1] 디스플레이 수출 국가별 증가율¹²⁾

분류	(전년동기대비, %)		
	23.3Q	23.4Q	24.1Q
디스플레이	1.2	10.7	12.4
(베트남) [54.2]	10.7	14.8	-4.5
(중국) [29.2]	-20.7	-10.9	26.0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MTI 83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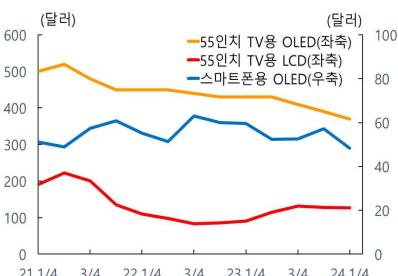
2) []내는 2024년 1/4분기 중

수출 비중(잠정치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소형 OLED 패널 가격 하락, 대형 패널 가격은 OLED 하락, LCD 보합

[그림 6.4]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81)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출하량)은 2022년 1/4분기 33.9%, 2023년 1/4분기 34.4%, 2024년 1/4분기 40.3%로 증가하고 있다(Omdia).

82)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주요 고객인 애플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023년 1/4분기 19.7%에서 2024년 1/4분기 15.7%로 축소되었다.(Counter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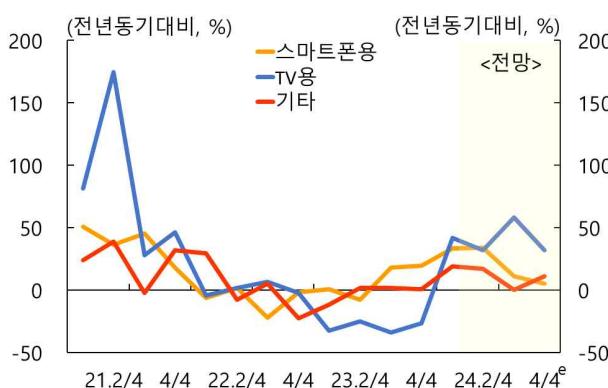
83) 베트남 및 중국 현지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받은 후 모듈 공정을 거쳐 현지의 핸드폰 및 TV 등 ICT제품의 제조 공장으로 납품하는데, 한국 및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및 BOE 등)은 베트남에 모듈 공장을 보유, 설립 및 증축하고 있어 對베트남 수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이다.

향후 전망

5.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은 OLED 탑재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로 생산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업체 간 경쟁심화로 수출은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스마트폰의 OLED 탑재율 상승, 프리미엄 제품의 디스플레이 차별화⁸⁴⁾ 및 태블릿PC 등 IT기기의 OLED 채택 본격화 등 OLED의 전방 수요가 기조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OLED 출하량 급증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가 어려워 수출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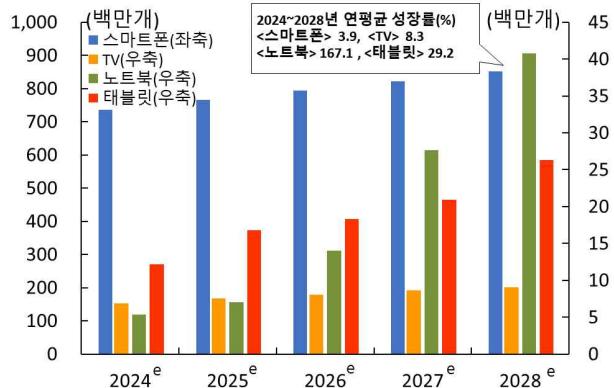
6. 설비투자는 IT OLED 탑재 확대에 대응한 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수입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발표되었던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의 IT OLED 투자 계획⁸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IT제품 OLED 생산용 장비업체 선정 및 장비 수입⁸⁶⁾ 등이 진행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세⁸⁷⁾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은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그림 6.5] 글로벌 OLED 패널 출하¹⁾ 전망

주: 1) 수량 기준
자료: Omdia

IT 기기에서 OLED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투자가 진행될 전망

[그림 6.6] 제품별 OLED 시장 전망¹⁾

자료: Omdia, KDIA

84) 프리미엄 제품에 채택되기 시작한 폴더블 OLED는 일반 OLED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출하량이 점차 증가(전년동기대비 17.4%)하고 있다.(Omdia)

85) 2023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는 IT기기용 OLED 패널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해 2026년까지 4.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BOE는 2023년 11월에 약 11조원 규모의 IT OLED 설비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디스플레이 업계의 IT OLED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86) 삼성디스플레이 및 중국 경쟁기업(BOE)은 IT OLED 생산라인에 도입될 증착장비 제조기업을 선정(각각 日 캐논도 키 및 韓 선익시스템)하였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1/4분기 중 8세대용 OLED 증착기 1대를 캐논도키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87) 2024년 1/4분기 중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MTI7361) 수입액은 0.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0.6% 증가하면서 작년까지 지속된 하락 추세(2023년 1/4분기 -72.3%, 2/4분기 -96.8%, 3/4분기 -86.0%, 4/4분기 -82.0%)가 마무리되었다.

참고문헌

Omdia(2023), “Large Area Display Market Tracker”

Omdia(2023), “Small Medium Display Market Tracker”

Omdia(2023), “PriceWise”

Omdia(2023), “Display Dynamics”

TrendForce(2023), “DRAM Platinum Datasheet”

휴대폰 [대구경북본부 손성보 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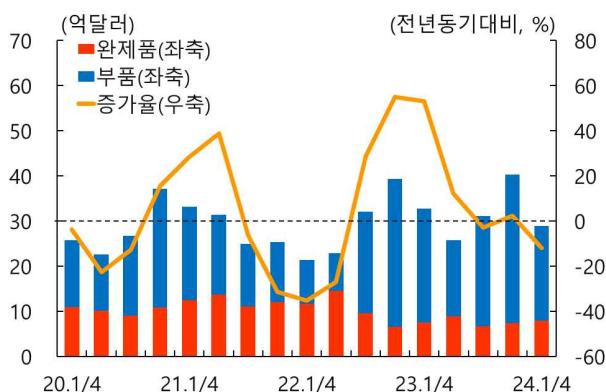
- 2024.1/4분기 중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AI 탑재 완제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품 수요가 중국 등에서 크게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하였다.
- 향후 휴대폰 완제품 수출은 AI 탑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 수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동향

1. 2024.1/4분기 중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완제품이 6.8% 증가한 반면 부품이 17.3%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하였다. 휴대폰 완제품의 경우 1월 신규 출시한 AI 탑재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EU,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부품 수출은 애플의 완제품 판매 부진⁸⁸⁾으로 카메라모듈 등의 부품 수출이 중국에서 대폭 감소하였으나 미국, 인도 등으로의 수출은 늘어나면서 감소폭을 일부 만회하였다.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

[그림 7.1] 휴대폰 및 부품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완제품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부품 수출은 감소

[표 7.1] 2024.1/4분기 휴대폰 및 부품 수출

	완제품		부품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0.98	(-72.5)	0.38	(47.9)
EU ¹⁾	3.91	(30.5)	0.73	(14.7)
중국 ²⁾	0.37	(88.6)	11.78	(-32.9)
베트남	0.09	(44.6)	5.90	(17.7)
인도	0.02	(5.6)	0.48	(53.9)
전체	7.97	(6.8)	20.86	(-17.3)

주: 1) 영국 포함, 2) 홍콩, 마카오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88) 2023년 중국 정부의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내 외국 브랜드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비롯하여 중국 시장내 자국산 스마트폰 선호현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1/4분기 중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5.9%)하였으나 삼성전자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2023.1/4분기 6.6천만대 → 2024.1/4분기 6.0천만대)하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중동,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였다. 주요 제조사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물량 기준)은 AI 탑재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모델의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였다.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20.2%로 전년동기(21.6%) 대비 1.4%p 하락하였다. 애플의 경우 중국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3.2%p 하락(2023.1/4분기 20.7% → 2024.1/4분기 17.5%)하였다. 한편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업체(화웨이)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늘어나는 모습⁸⁹⁾이다.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생산업체(오포·비보·샤오미)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인도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2022.4/4분기 26.9% → 2024.1/4분기 28.6%)하였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

[표 7.2]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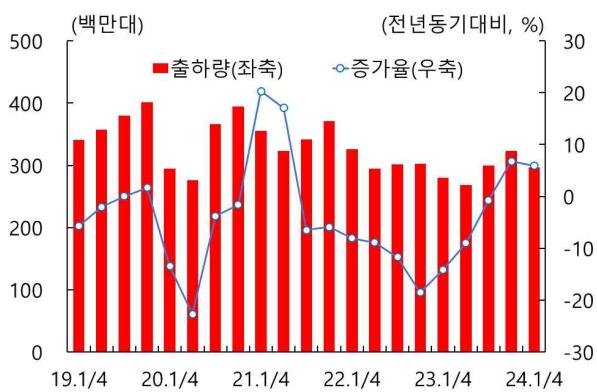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1.1/4	2/4	3/4	4/4	22.1/4	2/4	3/4	4/4	23.1/4	2/4	3/4	4/4	23.1/4
삼성	30.7	6.3	-138	10.4	-2.8	8.5	-7.2	-155	-186	-144	-7.6	-6.1	-1.0
애플	48.8	30.4	15.1	-0.5	-0.8	-4.9	2.5	-141	-1.7	-2.6	-0.6	9.5	-103
오포·비보·샤오미	65.8	61.4	3.1	-5.1	-243	-237	-175	-205	-184	-146	-5.8	1.4	60.1
화웨이 · 아너	-562	-71.7	-601	-379	-1.8	24.5	4.3	-8.6	-4.5	1.4	26.2	42.8	30.5
전체	20.3	17.1	-6.5	-5.9	-8.0	-8.9	-11.7	-185	-141	-9.0	-0.7	6.8	5.9

자료: Counterpoint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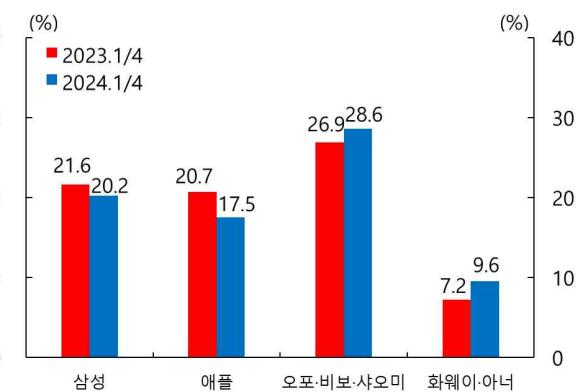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화웨이와 OVX¹⁰⁾는 증가

[그림 7.2]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Counterpoint

[그림 7.3]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주: 1) 오포(Oppo), 비보(Vivo), 샤오미(Xiaomi)

자료: Counterpoint

89) 화웨이는 2022년 연간 23.4백만대를 출하하며 글로벌 출하량 저점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연간 38.3백만대를 출하하였으며 2024년 53.1백만대, 2025년 61.0백만대로 점차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ounterpoint)

향후 전망

1. 향후 휴대폰 완제품 수출은 AI 탑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 수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 완제품 수출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확대, AI 탑재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 수출은 아이폰 판매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당분간 감소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 애플사의 신제품 출시, 국내 생산 고사양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량은 AI 탑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확대되겠으나 동종업계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경쟁심화, 글로벌 수요의 양극화 등으로 증가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 화웨이를 비롯한 경쟁업체들도 올해 AI 탑재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⁹⁰⁾이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 전체 출하량의 70% 이상이 중저가 모델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출하량이 빠르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자국산 스마트폰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2023년 출하량 기준 22.9%)에서 한국 제품의 판매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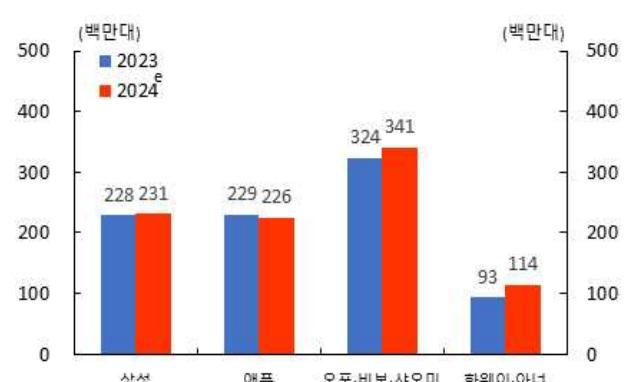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



자료: Counterpoint

삼성전자 및 중국 주요 업체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애플은 다소 감소할 전망

[그림 7.5]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생산량 전망



자료: Counterpoint

90) 애플은 올해 하반기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16을 선보일 예정이며, 화웨이가 공개한 퓨라70는 AI와 5G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 이외 오포, 아너, 비보 등 중국의 중저가 제조사들도 AI 휴대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문헌

김록호(2024), “중국 채널 재고 소진과 글로벌 회복”, 하나증권

이규하(2024), “판매량 개선, 중국 세트 재고 크게 감소”, NH투자증권

박강호(2024), “LG 이노텍: 반등의 계기가 도래”, 대신증권

산업통상자원부(2024), 1~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현황 보도자료

Counterpoint(2024), “Mobile Handset Shipment Forecast by Brand Region(Long Term)”

Counterpoint(2024), “Mobile Device Forecast”

VIII 이차전지 [충북본부 이재진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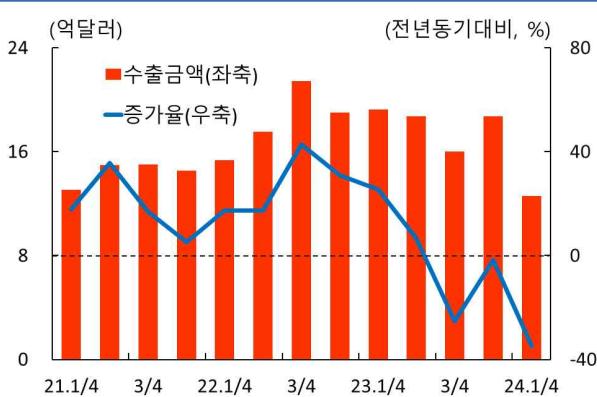
- 2024년 1/4분기 중 이차전지 수출은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전기차 수요 둔화,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하였다. 아울러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미국, 중국 및 유럽 모두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하였다.
- 2024년 2/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전방산업 둔화, 판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이차전지 관련 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와 중국업체들과 경쟁 심화가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한다.

최근 동향

- 2024년 1/4분기 중 이차전지와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전년 4/4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이차전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4.8% 줄어들며 전분기(-1.7%)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양극재 수출도 52.6% 줄어들면서 전분기(-40.4%)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이차전지와 양극재(이차전지 주요 소재) 수출은 감소폭 확대

[그림 8.1] 이차전지 수출



[그림 8.2] 양극재 수출



- 이차전지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유럽지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한다. 1/4분기 중 유럽지역에 대한 이차전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8.8% 줄어들면서 큰 폭의 감소세(23. 2/4분기 -32.1% → 3/4분기 -49.5% → 4/4분기 -31.5% → 24. 1/4분기 -48.8%)를 이어갔다.⁹¹⁾ 또한 미국에 대한 이차전지 수출이 큰 폭

감소(23.4/4분기 6.8% → 24.1/4분기 -44.3%)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1~2월 중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23.4/4분기 24.5% → 24.1~2월 15.3%) 되는 가운데 전기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 및 감산⁹²⁾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의 중국 수출은 증가한 반면
미국과 유럽 수출은 감소

[표 8.1] 우리나라의 국가별 이차전지 수출¹⁾

	2023.4/4분기		2024.1/4분기		(억달러, %)					
	미국	11.2	(6.8)	5.9	(-44.3)	미국	371	(24.5)	241	(15.3)
미국	11.2	(6.8)	5.9	(-44.3)	미국	371	(24.5)	241	(15.3)	
중국	1.1	(56.6)	0.9	(60.0)	중국	2,729	(33.7)	1,020	(28.5)	
유럽	3.0	(-31.5)	2.6	(-48.8)	유럽	784	(-14.4)	423	(20.5)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 전환한 반면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세 둔화

[표 8.2] 국가별 전기자동차 판매량¹⁾

	2023.4/4분기		2024.1~2월		(천대, %)					
	미국	371	(24.5)	241	(15.3)	미국	371	(24.5)	241	(15.3)
미국	371	(24.5)	241	(15.3)	미국	371	(24.5)	241	(15.3)	
중국	2,729	(33.7)	1,020	(28.5)	중국	2,729	(33.7)	1,020	(28.5)	
유럽	784	(-14.4)	423	(20.5)	유럽	784	(-14.4)	423	(20.5)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IBK투자증권, SNE Research

3. 양극재의 경우에는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전분기에 이어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23.4/4분기 -73.9% → 24.1/4분기 -77.7%), 중국(-33.1% → -45.8%) 및 유럽지역(-37.5% → -49.5%)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양극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원재료인 주요 광물의 가격 하락이 시차를 두며 양극재 가격에 반영되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⁹³⁾된 데 기인한다. 양극재 수출액 변화를 가격과 물량⁹⁴⁾ 요인으로 분해해 보면, 가격은 3분기 연속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물량은 2분기 연속 수출 감소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양극재의 미국, 중국, 유럽 수출은 모두 감소폭 확대

[표 8.3] 우리나라의 국가별 양극재 수출¹⁾

	23.4/4분기		24.1/4분기		(억달러, %)					
	미국	1.1	(-73.9)	1.7	(-77.7)	미국	1.1	(-73.9)	1.7	(-77.7)
미국	1.1	(-73.9)	1.7	(-77.7)	미국	1.1	(-73.9)	1.7	(-77.7)	
중국	7.4	(-33.1)	7.2	(-45.8)	중국	7.4	(-33.1)	7.2	(-45.8)	
유럽	9.0	(-37.5)	8.4	(-49.5)	유럽	9.0	(-37.5)	8.4	(-49.5)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광물 가격은 부진한 흐름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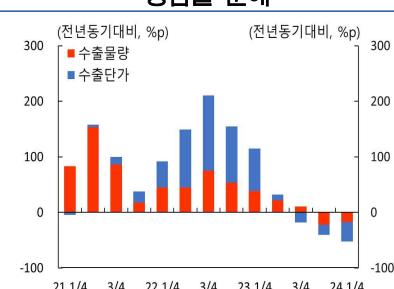
[그림 8.3] 주요 광물가격



자료: 한국자원정보

양극재 수출은 가격과 물량 요인 모두에 기인하며 감소폭 확대

[그림 8.4] 양극재 수출액 증감률 분해



자료: 한국무역협회

91) 유럽지역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024년 1~2월 중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했지만 중국 이차전지 제조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럽지역에 대한 이차전지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92) 미국의 원성차 업체 포드는 올해 미국 전기차 공장 직원 1,400명을 전환 배치하거나 해고할 예정이다. 한편 테슬라도 2024년 1/4분기 중 부진한 인도량을 보이며 향후 인력을 감산할 예정이다.

93) 2024년 전기차 판매 성장을 전망치는 27%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EV Volumes)

94) 양극재의 수출 단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4.1/4분기 중 -40.6%로 23.3/4분기(-14.9%)와 4/4분기(-20.7%)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수출 물량 증가율도 -20.2%로 전분기(-24.8%)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냈다.

4. 2024년 1/4분기 중 국내 이차전지 및 양극재 생산 주요 기업의 매출액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매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올해 1/4분기 중 각각 -29.9%, -4.2%로 전년 4/4분기 중 -6.3%, -6.7%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갔으며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도 전년동기대비 51.7% 감소하며 전분기(-39.3%)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국내 주요 기업의 매출액은 부진한 모습

[표 8.4] 국내 주요 기업 실적¹⁾

(천억원,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매출액	23.4/4분기	80.0	(-6.3)	55.6	(-6.7)
	24.1/4분기	61.3	(-29.9)	51.3	(-4.2)
영업이익	23.4/4분기	3.4	(42.5)	3.1	(-36.5)
	24.1/4분기	1.6	(-75.2)	2.7	(-28.8)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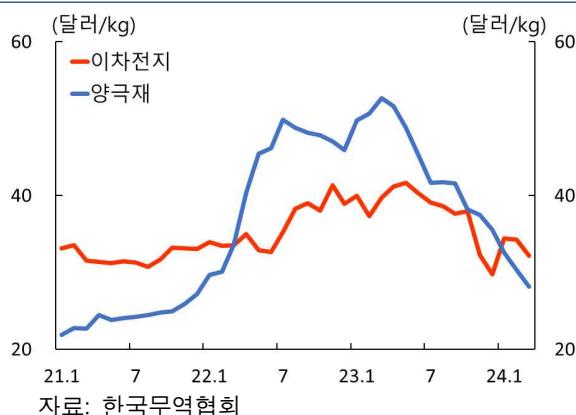
자료: FnGuide, 각사 발표

향후 전망

5. 2024년 2/4분기 중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및 양극재 모두 판매가격 하락이 2024년 2/4분기 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⁹⁵⁾되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 부족,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⁹⁶⁾, 전기차 보조금 지급 축소·중단⁹⁷⁾ 및 높은 금리 부담 등이 전기차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이차전지와 양극재 판매가격 하락 지속

[그림 8.5] 이차전지 및 양극재 판매가격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기차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관련 투자 계획 연기

[표 8.5]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관련 계획

기업명	세부내용
GM	- 미시간주 전기차 생산 공장 가동 1년 연기 - 전기차 생산 목표 하향
포드	- LGES과의 터키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계획 취소
VW	- 동유럽 4번째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 연기
Lucid	- 연간 전기차 판매량 목표 조정
Daimler	- 신차 중 친환경 차량 비중 목표 조정

자료: 각사 발표, 하이투자증권

95) 주요 광물가격이 올해 1/4분기 중 소폭 반등하였으나 중간재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일정 시차를 두고 판매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중간재 가격 반등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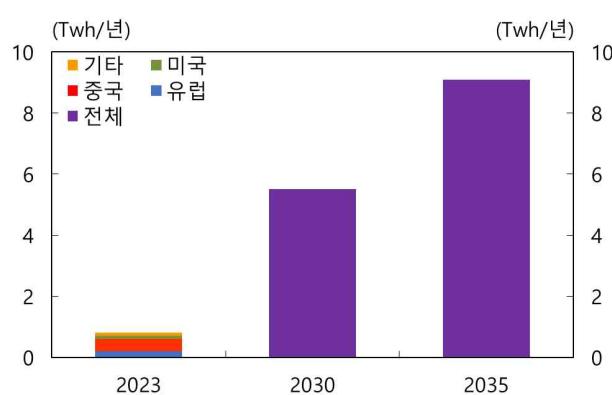
96)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에 비해 초기 비용이 낮은 데다, 충전이 용이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97)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2024년 중 국가 보조금이 평균 100만원 줄어들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지난 해 독일, 영국,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고, 프랑스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6. 최근 전방 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및 양극재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⁹⁸⁾,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노력⁹⁹⁾ 등이 이차전지 관련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2030~35년경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모색하면서 이차전지 관련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⁰⁰⁾

7. 이차전지 및 양극재 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와 시장 경쟁 심화 등이 상존한다. 미국 대선 결과¹⁰¹⁾에 따라 차량 연비와 배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전기차 수익성이 확보가 어려운 완성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닌 중국 이차전지 제조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도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전망

[그림 8.6]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¹¹⁾

주: 1) 탄소 중립 목표 하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전망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존재

[표 8.6] 전기차 관련 주요 공약

구분	트럼프 공약
CAFE ¹⁾	-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차 가격에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비기준 종료
EPA ²⁾ 배출규제	- 자동차 관련 제조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배출 규제 취소
IRA 법안	-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으며 법안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
기타	- 미국 내 핵심 원료 생산 활성화

주: 1) Corporation Average Fuel Efficiency의 약자로 차량 연비 관련 규제를 의미

2) 미국환경보호청

자료: 언론종합, 하이투자증권

98) 유럽연합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42.5%로 높일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승인 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

99) 이는 ESS 시장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021년 110억달러에서 연평균 23% 성장하며 2030년 중 2,6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100)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탄소 중립 목표 하에서 2030년과 2035년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2023년에 비해 각각 7배, 1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1)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당선될 경우 취임과 동시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문헌

강동진(2024), “삼성SDI, 실험실을 나온 전고체 전지”, 현대차증권

강성진(2024), “KB 전기차&배터리”, KB증권

송선재(2024),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하나증권

이상현(2024), “Monthly 자동차/2차전지”, IBK투자증권

정원석(2024), “이차전지 Monthly”, 하이투자증권

정원석(2024), “이차전지, 위기를 기회로”, 하이투자증권

주민우(2024), “에코프로비엠, 실적 대비 양호할 주가 평포먼스”, NH투자증권

EIA(2024), Global EV Outlook 2024, “Moving towards increased affordability”

LG에너지솔루션(2024), “24.1분기 잠정실적 발표자료”